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통88장)

1.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팬데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신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2.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 된 열 두 보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보석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3.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하나인 흉패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 된 열 두 보석을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 내려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보세요.
4. 흉패 속에 우리와 동심을 넣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였기에 판결 흉패라 불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우리와 동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나요?